

한국 대학생들의 공감역량이 사회문제 옹호에 미치는 영향 :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

김세림* · 이민지** · Ayun Qurrotu*** · 강정희**** · 조항*****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공감능력,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공감능력과 사회문제 옹호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감능력과 사회문제 옹호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분석 절차에 따라 SPSS PROCESS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능력,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는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문화다양성 역량은 공감능력이 사회문제 옹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능력이 사회문제 옹호 행동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수용 태도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감능력과 문화다양성 역량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이 대학생의 사회참여 행동 증진을 위한 심리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_공감역량, 사회문제 옹호, 문화다양성 역량, 대학생

이 논문은 2024년도 인제대학교 교원연구년제의 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20240009).

* 제1저자,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 석사, kimserim318@naver.com

** 공동저자,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 석사, twoh1117@naver.com

*** 공동저자,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 석사, jennith99@naver.com

**** 공동저자,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 박사과정, vovohee@naver.com

***** 교신저자, 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 부교수, hangjo@inje.ac.kr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다양한 정체성과 계층 간의 갈등, 차별, 혐오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다.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74.8%),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53.9%)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52.6%), 출신 지역(46.9%)에 따른 차별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 이러한 갈등 양상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구조적 위협으로 지적된다(권혁주 2016; 김동훈 2025; 이혜리·김희순 2024; 임재형 2024). 이러한 사회문제는 적절히 해소되지 못할 경우 집단 간 대립을 고착화하고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주체인 대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사회현안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문제 옹호(social issue advocacy) 행동은 사회 내 만연한 불평등, 차별, 억압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임은미 2016; Marszalek et al, 2017). 이는 단순한 문제 인식이나 정서적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부조리에 도전하며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실천적 기제로서 민주사회 시민의식 함양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학생들은 정작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참여 역량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19~29세 청년층의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인지 정도’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통계청 2024). 이러한 현상은 ‘삼포세대’, ‘잉여세대’ 등의 자조적 표현에서 드러나듯, 청년세대가 직면한 구조적인 경제난과 고용 불안에서 기인한다. 생존과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변화의 주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고(정상호·조광덕 2017),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습 환경과 주입식 교육은 청소년기의 사회참여 경험을 단절시켜 대학생 시기의 시민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민문경·안현희 2014; 박희진·남궁지영 2018).

역설적으로 이러한 취약성은 대학생들의 사회문제 옹호 행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한다. 공동체적 연대와 구성원 간 신뢰가 사회갈등 해결의 핵심임을 고려할 때(서문기 2020), 대학생 시기는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습득하고 역할을 탐색하는 결정적인 발달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학생들이 사회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옹호 활동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대외 활동을 넘어 자아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주요한 발달 과업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민문경·안현희 2014; 박지현 2020). 따라서 대학생들이 개인적 생존 경쟁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옹호 행동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제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 사회문제 옹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심리적 기제가 요구되며, 그 핵심적인 동인으로 공감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감역량은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인지적·정서적 특성으로(Davis 1983), 개인의 이타적 동기를 넘어 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감역량은 타인의 고통과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Eisenberg and Miller 1987) 불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을 촉진한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공감역량은 사회정의 자기효능감 등을 매개로 사회정의 실천 행동을 강화하거나(민문경 외 2015), 상담자의 사회문제 옹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보라·유성경 2023). 이러한 결과들은 공감역량이 사회문제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과 부당함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옹호 행동을 촉발하는 선행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문제 옹호가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감역량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차이가 갈등과 혐오로 비화되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카이스트 신문 2023.07.05), 문화다양성 역량은 차이를 배제의 근거가 아닌 이해와 조정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시민적 자질이다. 문화다양성 역량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박혜숙 외 2023),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다문화역량 연구들이 이주민 및 소수자 맥락에서 사회문제 옹호역량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규명한 바 있으며(강혜정 외 2024), 청년층의 문화다양성 감수성이 사회참여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임숙 2024)는 타집단에 대한 존중 태도가 실제적인 옹호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공감역량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문제 옹호와 같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감은 타인의 고통과 부당함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을 높이는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지만, 사회문제는 개인 간 관계를 넘어 문화적 차이와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공감이 실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집단 간의 차이와 불평등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은 공감역량을 통해 형성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확장시키고, 사회적 차이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회문제 옹호 행동의 발현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공감역량과 사회문제 옹호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공감역량은 타인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을 제공하는 출발점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옹호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이와 구조적 불평등을 해석하는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공감역량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과 존중을 촉진하는 중요한

선행 변인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노윤구·이외선 2018; 박지윤·박은민 2018; 유금순·이원웅 2022). 즉, 공감역량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경험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차별과 배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구조적 이해는 문화다양성 역량의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박혜숙 외 2023). 결론적으로, 공감역량을 통해 형성된 타인에 대한 민감성은 문화다양성 역량을 통해 사회적 차이와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이해로 구체화되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사회문제 옹호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문화다양성 역량은 공감역량에 기반한 정서적 민감성을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기제로 기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감역량이 문화다양성 역량을 매개로 사회문제 옹호 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역량이 사회문제 옹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변인 간의 통계적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해야 할 대학생들의 시민의식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기제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시민성 함양과 사회참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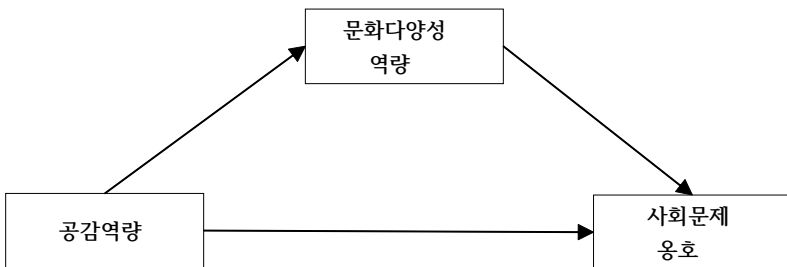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공감역량, 사회문제 옹호, 문화다양성 역량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공감역량과 사회문제 옹호의 관계를 문화다양성 역량이 매개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공감역량

공감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서 상태를 함께 느끼거나 이해하는 포괄적 현상을 의미한다. 반면 공감역량은 이러한 공감이 실제 대인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조절되며, 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보다 구체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Davis 1983; 1994; Hoffman 2000). 즉, 공감역량은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개인의 다차원적 심리적 특성으로 정의되며(Davis 1983), 단순한 감정적 동조를 넘어 인지적 이해와 정서적 반응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역량은 선천적 능력이 아닌, 인지적·정서적 요소를 결합되어 실제 상황에서 발휘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Davis(1983; 1994)는 공감역량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보았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를 포함하며, 이는 개인이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를 보다 넓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도록 돕는다. 정서적 공감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를 의미하는 공감적 관심과 타인의 고통에 노출될 때 경험하는 자기지향적 불편감인 개인적 고통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친사회적 반응과 연결되는 반면, 개인적 고통은 지나치게 높은 경우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자기방어적으로 반응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옹호적 반응은 타인의 처지를 정확히 이

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타인지향적 정서반응이 균형 있게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성과 시민적 가치관이 본격적으로 정교화되는 발달 단계이며(Erikson 1968), 타인의 삶과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후의 사회참여와 공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감역량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고통을 사적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특성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에 기여한다(Eisenberg and Miller 1987). 실제로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책임감, 사회정의의 관련 태도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개인 간 공감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불평등 구조를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Segal and Wagaman 2017).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의 공감역량은 단순한 대인관계 기술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시민적 실천의 심리적 출발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대학생의 문화다양성 역량

문화다양성 역량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역량을 의미한다(박혜숙 외 2023; 송선영·김향인 2015). 이는 단순히 타집단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인식하며 실제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실천지향적 개념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역량은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조건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 역량은 유사 개념인 다문화수용성, 문화다양성 태도, 다문화역량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문화수용성이나 문화다양성 태도는 주로 타집단에 대한 개방성, 호감, 수용 여부와 같은 태도 차원에 초점을 둔다. 반면 다문화역량은 주로 이주민, 외국인, 특정 소수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지원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문화다양성 역량은 젠더, 장애, 계층,

지역, 세대, 성적 지향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차이를 포괄하며,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권리, 형평성, 사회적 연대의 문제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송선영·김항인 2015). 이처럼 본 연구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을 핵심 변수로 설정한 것은, 대학생의 사회문제 옹호가 특정 소수집단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문제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박혜숙 등(2023)은 대학생의 문화다양성 역량을 인지적 역량, 정의 감수성 역량, 실천적 역량의 세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인지적 역량은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토대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성찰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의 감수성 역량은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실천적 역량은 이러한 이해와 태도를 실제 상호작용, 참여, 개입, 연대 행동으로 연결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는 이 세 차원을 포괄하여 문화다양성 역량을 '다양한 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와 관련된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공존과 정의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대학생의 통합적 역량'으로 정의한다.

대학은 전공과 교양 수업, 토론, 동아리, 봉사활동, 국제교류 등 다양한 장면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타인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대학생의 시기가 문화다양성 역량이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시기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학생의 문화다양성 경험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자신의 편견을 성찰하고, 차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며, 공동체적 책임을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다양성 존중 태도와 다문화 관련 역량이 친사회적 행동, 시민의식, 사회참여와 관련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박혜숙·원미순 2010; 이병임 2021). 따라서 문화다양성 역량은 대학생의 사회문제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핵심 변인이라 할 수 있다.

3) 대학생의 사회문제 옹호

사회문제 옹호는 사회 내 불평등, 차별, 억압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의견을 표명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실천적 과정을 의미한다(Jason, Beasley and Hunter 2015; Nilsson et al. 2011). 이는 개인적 신념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차별 상황에 대한 개입, 정책에 대한 관심과 감시, 공동체 연대, 사회참여 행동 등 구체적인 실천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의 옹호'와 '사회문제 옹호'를 혼용하지 않고, 측정도구와 연구목적에 맞추어 '사회문제 옹호'로 용어를 통일하게 사용하고자 한다.

Nilsson 등(2011)이 개발한 사회문제 옹호 척도(SIAS)는 정치·사회적 참여, 차별 상황에 대한 대면, 정책의 영향 인식,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며, 이후 Marszalek 등(2017)의 SIAS-2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쟁점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되었다. 이러한 척도들은 사회문제 옹호를 단일한 정치 행동이 아니라 인식, 태도, 행동 의도가 결합된 다차원적 실천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은미(2016)의 국내 타당화 연구 역시 이 개념이 상담장면이나 전문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청년 집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제 옹호를 '대학생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며, 개입과 참여를 시도하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대학생 시기는 시민성과 공공성을 학습하는 중요한 과도기이며, 사회문제 옹호는 이러한 발달과업이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대학생은 교과 수업, 서비스 러닝, 동아리,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접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탐색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년기의 사회참여와 옹호 경험이 개인의 비판적 사고, 공동체 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Closson and Mullins Nelson 2009).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문제 옹호를 이해하는 일은 시민성 교육과 사회참여 촉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4) 세 변인 간의 관계

공감역량,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는 각각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대 학생의 시민성과 사회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히 세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공감역량이 문화다양성 역량을 거쳐 사회문제 옹호와 관련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문제 옹호를 촉진하는 심리적 출발점과, 그것이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근접 기제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감역량은 문화다양성 역량의 형성에 선행하는 심리적 기반으로 볼 수 있다. 공감역량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보다 민감하게 이해하고, 자기와 다른 삶의 조건을 배제보다 이해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Davis 1983; Hoffman 2000). 이러한 논의는 해외연구에서도 확인된다. Lin과 Chung(2024)은 홍콩의 예비 및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 공감이 다문화 신념을 높이고, 이러한 신념이 다시 다문화 교수역량의 지식, 기술, 관계형성 능력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kong, Kavookjian, Hutchison(2017)은 대학생에 해당하는 약학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감 성향과 상호문화 감수성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Todd와 Galinsky(2012)는 다섯 개 실험을 통해 다문화주의와 관점수용이 상호 강화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공감역량은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 인권의식 등을 매개로 타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노윤구·이외선 2018; 박지윤·박은민 2018; 유금순·이원웅 2022).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공감역량이 문화다양성 역량의 직접적 하위요인은 아니더라도,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정서적·인지적 토대임을 시사한다.

둘째, 문화다양성 역량은 공감적 반응이 사회문제 옹호로 확장되는 데 필요한 실천 자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개입,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정서적

반응이 사회적 실천으로 발전하려면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권리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며, 실제 대응 방식을 모색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해외연구에서도 다양성 관련 교육 경험과 상호문화 역량은 사회행동 참여나 시민참여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Nelson Laird 등(2005)은 다양성 교과목 수강이 학생들의 사회행동 참여의 중요성 인식을 강화한다고 보았으며, Smith 등(2010)은 학부 시절 다문화 교육과정을 더 많이 경험한 졸업생일수록 5년 후 더 높은 다문화 역량과 자원봉사 활동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Saavedra 등(2022)은 비판적 서비스러닝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학기 말에 사회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문제로 이해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 의지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문화다양성 역량과 감수성은 비판적 의식, 시민의식, 사회참여, 옹호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혜정 외 2024; 김영순·박미숙 2016; 임숙 2024). 이는 문화다양성 역량이 단지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불평등을 공적 사안으로 해석하고 대응하게 하는 연결 고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다양성 역량이 '문화다양성 관련 사회문제'에만 국한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문제 옹호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다양성 역량은 이주민이나 외국인에 대한 태도만을 뜻하지 않고, 젠더, 장애, 계층, 세대, 지역,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이를 둘러싼 불평등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포함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역량이 높은 대학생은 특정 집단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차별과 배제를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관심과 개입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 기제이자, 대학생의 사회문제 옹호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공감역량은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 심리적 출발점이며, 문화다양성 역량은 이러한 이해를 사회적 차이와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인식 및 실천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문화다양성 역량은 대학생의 사회문제 옹호와 유의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감역량과 사회문제 옹호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대학생의 사회참여 행동이 어떠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바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00명이다. 본 연구는 인제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한 온라인 편의표집으로 2025년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거주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성별은 남학생 136명(27.2%), 여학생 364명(72.8%)이었다. 학년은 1학년 104명(20.8%), 2학년 88명(17.6%), 3학년 100명(20.0%), 4학년 201명(40.2%), 기타 7명(1.4%)이었다. 거주지역은 경기도 130명(26.0%), 서울 129명(25.8%), 부산 30명(6.0%), 인천 29명(5.8%), 경상남도 28명(5.6%) 등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공감역량

본 연구의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반응하는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으로 정의한 공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9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이며, 박성희(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반응지수는 공감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타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이주혜·조영아 2014; 한가희·이인혜 2016). 원척도의 Cronbach's α 계

수는 .70~.78이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역량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관점 취하기’는 상황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상상하기’는 책이나 영화 속 인물의 감정과 경험에 몰입하는 성향을 반영하며, 두 요인은 인지적 공감을 나타낸다. ‘공감적 관심’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연민을 느끼는 정도를,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심리적 불편감이나 괴로움을 함께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 두 요인은 정서적 공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2) 사회문제 옹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표현하고 개입과 참여를 시도하는 경향으로 정의한 사회문제 옹호를 측정하기 위해 임은미(2016)가 국내 타당화한 사회문제 옹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치·사회적 정치참여’, ‘개인에 대한 정책의 영향 인식’, ‘동료의 차별행동 직면’, ‘관련 분야 정책현안 주시’ 등에 대해 묻는 총 19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SIAS는 원칙도 개발 시 상담자·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사회문제 옹호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며(Nilsson et al., 2011), 이는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예비유아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조은경·김미애 2020), 해외에서도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표본을 대상으로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Collins 2019). 이러한 연구들은 SIAS가 전문직뿐 아니라 대학생 집단에서도 적용 가능한 도구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도 SIAS를 활용하여 대학생의 사회문제 옹호 태도와 행동 의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임은미(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척도의 전체 내적 신뢰도는 .93이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3) 문화다양성 역량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와 관련된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공존과 정의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대학생의 통합적 역량으로 정의한 문화다양성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박혜숙 등(2023)이 개발한 문화다양성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화다양성을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지적 역량, 감수성 역량, 실천적 역량의 세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다양성은 민족·국적·인종·종교·정치적 성향·소득계층·성별·세대·장애·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문화다양성 역량으로 정의된다. 인지적 역량은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감수성 역량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이해하려는 정서적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실천적 역량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인지적 역량 6문항, 감수성 역량 4문항, 실천적 역량 8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다. 박혜숙 등(2023)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64~.7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주요 변인들의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확인하고자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감역량,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측 검정 여부를 활용하여 Pearson r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공감역량이 사회문제 옹호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역량이 문화다양성 역량을 매개로 사회문제 옹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하고자 Hayes(2013)가 제안한 분석 절차에 따라 SPSS PROCESS model 4를 적용하였

다. 본 연구의 부트스트래핑 표집 횟수는 5,000회로 설정하였으며, 95%의 신뢰 구간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응답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왜도와 첨도 값을 통해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세 변인 모두 5점 기준에서 공감역량은 평균 3.34(SD=.38), 문화다양성 역량은 평균 3.61(SD=.40), 사회문제 옹호는 평균 2.96(SD=.65)으로 나타났다. 왜도 통계량은 -.07에서 .34 사이에 분포하였고, 첨도 통계량은 .07에서 .57 사이에 분포하여 정규성 가정(왜도 $<\pm 3$, 첨도 $<\pm 1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05).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감역량은 문화다양성 역량($r=.34, p<.001$)과 사회문제 옹호($r=.16, p<.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공감역량이 높을수록 문화다양성 역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500

변인	공감역량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
공감역량	-		
문화다양성 역량	.34***	-	
사회문제 옹호	.16***	.26***	-
평균	3.34	3.61	2.96
표준편차	.38	.40	.65
왜도	.29	.34	-.07
첨도	.57	.13	.07

*** $p<.001$

량이 높고, 사회문제 옹호 수준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역량은 사회문제 옹호($r=.2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문화다양성 역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사회문제 옹호 점수를 보였다.

2) 공감역량과 사회문제 옹호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

공감역량이 사회문제 옹호에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는 <표 2>, <그림 2>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년)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공감역량은 매개변수인 문화다양성 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46, p<.001$). 둘째, 매개변수인 문화다양성 역량은 종속변수인 사회문제 옹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370, p<.001$). 셋째, 문화다양성 역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감역량은 사회문제 옹호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확인한

표 2. 공감역량과 사회문제 옹호 사이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

구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β	t	p
1	공감역량	문화다양성 역량	.346	.045	.331	7.73***	<.001
2	공감역량	사회문제 옹호	.151	.079	.088	1.91	.057
	문화다양성 역량		.370	.076	.226	4.91***	<.0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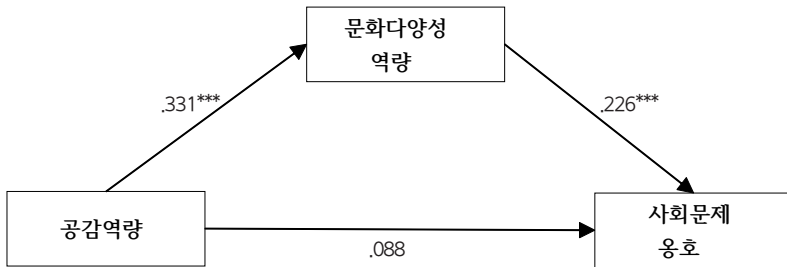


그림 2. 공감역량과 사회문제옹호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151, p=.057$).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공감역량이 문화다양성 역량을 거쳐 사회문제 옹호로 이어지는 간접경로의 계수는 .128로 산출되었다. 해당 경로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95% CI [.071, .196]), 문화다양성 역량을 통한 유의한 간접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역량이 사회문제 옹호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을 경유하는 경로가 중요한 통계적 설명력을 가짐을 뒷받침한다.

표 3. 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공감역량 → 문화다양성역량 → 사회문제 옹호	.128	.032	.071	.196

5. 논의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역량과 사회문제 옹호 간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은 사회적 가치와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해당하며, 이들의 공감적 태도와 사회참여 행동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공감역량이 문화다양성 역량을 매개로 사회문제 옹호로 이어지는지를 밝히는 일은 개인의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실천 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공감역량,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공감역량과 문화다양성 역량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불

평등한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역량이 중요한 기초가 됨을 보여준다. 실제로 공감적 태도가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에 대한 민감성과 실천적 개입 의지를 높인다는 선행연구(박소현·장진이 2023; 이희진·이원준 2025)와 공감역량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지닌 타인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어진다는 연구(고미숙 2017; 박연숙 외 2015; 이정아·이윤정 2016; 오재우·전미경 2024) 역시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공감역량이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특성으로서 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Davis 1983)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공감역량이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기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공감역량과 사회문제 옹호 간의 관계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의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감역량이라는 내적 정서 반응만으로는 사회문제 옹호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실천적 개입 능력이 함께 작동해야만 공감역량이 실제 사회참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역량이 사회정의 실천 행동에 직접 작용하기보다 사회인지적 기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민문경 외 2015)를 지지하며, 공감역량이 다문화 수용성,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행동 역량(김지영 2020; 김현정·유두련 2020; 박신영·어용숙 2019; 유금순·이원웅 2022)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Segal(2011)이 제시한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 모형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Segal(2011)은 개인적 공감이 타인의 정서와 경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지만, 공감역량만으로는 사회적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함께 형성될 때 비로소 사회적 책임과 사회정의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인적 공감이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결합될 때 사회적 실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공감역량만으로 사회정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Segal과 Wagaman(2017)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또한 공감역량이 곧바로 사회문제 옹호 행동으로 이어지

기보다는 문화다양성 역량이라는 사회적 맥락 이해 과정을 거칠 때 실천 행동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역량으로서 공감역량이 사회문제 옹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공감역량이 문화다양성 역량을 거쳐 사회문제 옹호로 이어지는 유의한 간접 경로는 공감이 어떻게 실천적 사회 행동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문화다양성 역량을 통한 간접효과는 뚜렷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정서적 공감 그 자체만으로는 복잡한 사회적 기제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옹호 행동을 충분히 견인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즉, 개인의 정서적 차원인 공감이 실천적 차원인 사회문제 옹호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차이를 존중하고 불평등의 구조를 인식하는 가치 체계인 문화다양성 역량이 필수적인 심리적 토대로 기능해야 함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다문화 관련 연구들이 주로 강조해 온 '다문화역량'이나 '다문화수용성'의 논의를 한 단계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독창성을 갖는다. 선행연구들(박혜숙 외 2023; 이병임 2021)은 주로 이주민이나 외국인 등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나 지원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상정한 문화다양성 역량은 젠더, 장애, 계층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차이를 포괄하며, 이를 권리와 형평성의 문제로 다루는 보다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시민 역량이다(송선영·김향인 2015).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회참여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적 도움을 넘어, 보편적 인권과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옹호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이 갖는 독자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비록 본 매개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다소 제한적이거나, 문화다양성 역량을 경유하는 경로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는 점은 교육적 개입의 구체적인 타겟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대학 교육이 단순한 정서적 공감능력의 증진을 넘어, 자신의 편견을 성찰하고 차별 기제를 인식하는 인지적·정의적

차원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다양성 역량은 교육을 통해 함양될 수 있는 가소성이 높은 변인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유의한 간접 경로는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지점—즉, 공감이라는 원동력을 사회문제 옹호라는 실천적 결과물로 변환시키는 핵심 동인—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교육 과정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정의 감수성을 내면화할 수 있는 역량 중심 커리큘럼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단순히 공감역량만을 강조하는 접근으로는 대학생의 사회문제 옹호 행동을 충분히 촉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감적 태도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역량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교양 교과목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를 실제적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다양성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나 토론·조별 활동 중심의 교양 수업은 대학생의 문화다양성 인지적·실천적 역량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선옥·박혜숙 2024; 서재복 외 2020).

아울러 대학 차원에서는 국제교류처, 외국인 지원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 인권센터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역량을 체득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학생이 협력하는 글로벌 멘토링이나 문화교류의 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나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센터에서는 차별·혐오 문제를 주제로 한 인권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이 직접 토론하고 대안을 탐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비교과 활동은 교과 과정에서 다룬 학습을 실제적 상호작용과 경험으로 확장시키며, 대학 공동체 전반에 포용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워크숍, 공모전, 봉사활동, 상담, 외국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체험 중심 비교과 활동

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사회적·관계적 역량 함양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손화정 2024).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반하였기에 공감역량, 문화다양성 역량, 사회문제 옹호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매개효과 분석은 인과적 흐름을 전제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공감역량이 사회문제 옹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다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성별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공감역량과 문화다양성 역량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비율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공감역량과 문화다양성 역량에 초점을 두었으나, 사회문제 옹호 행동에는 사회참여 경험, 사회적 효능감,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포함하거나 통제된 구조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양적 설문 기반 분석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 역량이 실제 사회참여 행동으로 확장되는 맥락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등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공감적 태도가 사회문제 옹호 행동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맥락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교신: 조항(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hangjo@inje.ac.kr)

Correspondence: Hang J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Inje University)(hangjo@inje.ac.kr)

2026.01.15 접수, 2026.01.22 심사, 2026.05.22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혜정 외, 2024, 교사의 자기옹호, 다문화역량, 사회정의 옹호역량의 구조적 관계, 다문화사회연구, 17(1), 35-68.
- 고미숙, 2017, 일개 대학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과의 관계: 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 7(1), 1-11.
- 권혁주, 2016, 한국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방안: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행정논총, 54(2), 93-116.
- 김동훈, 2025,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에 관한 언론 보도 분석, 시큐리티연구, (특별호), 223-246.
- 김보라·유성경, 2023, 상담자의 권위주의 성격과 사회정의 옹호역량의 관계: 공감적 이해의 매개 및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조절효과, 다문화사회연구, 16(3), 31-65.
- 김영순·박미숙, 2016, 다문화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근거이론적 패러다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4(2), 69-89.
- 김지영, 2020,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367-374.
- 김현정·유두련, 2020, 베이비부머의 공감능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자이즌증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275-301.
- 노윤구·이외선, 2018,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과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373-381.
- 민문경·안현의, 2014, 사회 인지 관점에 따른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의 검증: 국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33-154.
- 민문경 외, 2015, 공감능력이 사회 정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4), 575-594.
- 박선옥·박혜숙, 2024, 문화다양성 관련 교과목이 대학생의 문화다양성 역량에 미치는 효과 연구, 교양학 연구, 7-38.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문음사.
- 박소현·장진이, 2023, 20대 성인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공감능력, 사회정의 실천,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발달지원연구, 12(3), 19-38.
- 박신영·어용숙, 2019, 문화적 다양성 태도, 문화적 공감이 시민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효과: 김해시민을 중심으로: 김해시민을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31(1), 183-195.
- 박연숙 외, 2015, 간호학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과 공감능력 차이, 다문화건강학회지, 5(2), 39-47.
- 박지윤·박은민, 2018,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223-242.

- 박지현, 2020, 대학생의 사회정의 관심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사회정의 지지와 사회정의 장애의 조절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7(2), 287-303.
- 박혜숙 외, 2023, 대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문화연구, 29(1), 111-136.
- 박혜숙·원미순, 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박희진·남궁지영, 2018, 대학생의 시민의식 수준 및 영향 요인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2), 165-193.
- 서문기, 2020, 한국 계층갈등의 지형과 공감사회: 코로나 시대의 극복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3), 197-208.
- 서재복 외, 2020, 중학생 민주시민역량 증진을 위한 인성과 문화다양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885-905.
- 손화정, 2024, K대학교의 역량 기반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 비교과교육연구, 5(1), 59-76.
- 송선영·김향인, 2015, 문화다양성 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I -이론적 논의와 내용 체계, 倫理研究, 1(100), 257-282.
- 오재우·전미경, 2024, 임상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공감능력 및 범문화 효능감이 간호업무행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14(1), 15-24.
- 유금순·이원웅, 2022,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과 문화다양성 연구, 4(1), 41-62.
- 이병인, 2021,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과 공감능력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5(3), 183-194.
- 이정아·이운정, 2016,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3-91.
- 이주혜·조영아, 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579-594.
- 이혜리·김희순, 2024, 위기의 갈등 시대, 사회갈등 관리 전략을 위한 제언: 라틴아메리카와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 분석을 통해, 경영컨설팅연구, 24(6), 315-329.
- 이희진·이원준, 2025, MZ 세대와 MZ 이전 세대의 정서적 성숙과 공감이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인권인식과 옹호개입의사에 미치는 효과, 공공사회연구, 15(1), 139-174.
- 임숙, 2024, 상담자의 다문화감수성과 비판적 의식이 사회정의 옹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5), 349-365.
- 임은미, 2016, 한국상담자를 위한 사회문제 옹호척도(SIAS)의 타당성 검증, 상담학연구, 17(4), 51-70.

- 임재형, 202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현황과 갈등의 이념화 현상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22(3), 83-125.
- 정상호·조광덕, 2017, 우리나라 대학생의 가치가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시민사회와 NGO, 15(1), 111-151.
- 조은경·김미애, 2020, 예비유아교사의 옹호(advocacy)와 옹호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66-92.
- 카이스트신문, 2023.07.05, 혐오로 얼룩진 사회, <https://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0>(인출: 2025.12.26).
- 통계청, 2023, 2023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 통계청, 2024,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
- 한가희·이인혜, 2016,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대인관계 문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683-697.
- Closson, R. B. and B. Mullins Nelson, 2009, Teaching social justice through community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3(1), 10.
- Collins, J. D., 2019, A comparative group factor analysis of the SIAS: Implications for measuring social justice leadership capacity. *Journal of Leadership Education*, 18(3), 20-40.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Colorado: Westview Press.
- Eisenberg, N. and P. A. Miller,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Ekong, G. et al., 2017, Predisposition for empathy,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intentions for using motivational interviewing in first year pharmacy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81(8), 5989.
- Erikson,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W.W. Norton & Company.
- Hayes, A. F., 2013, *An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son, L. A. et al., 2015, Advocacy and social justice. *Community psychology: Foundations for practice*, 262-289.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Calif: Sage Publications.
- Lin, S.-Y. and K. K. H. Chung, 2024, Linking teacher empathy to multicultural teaching competence: The mediating role of multicultural belief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7(6), 3573-3595.
- Marszalek, J. M. et al., 2017, Development of the social issues advocacy scale-2 (SIAS-2). *Social Justice Research*, 30(2), 117-144.
- Nelson Laird, T. F. et al., 2005, Modeling accentuation effects: Enrolling in a diversity course and the importance of social action engage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4), 448-476.
- Nilsson, J. E. et al., 2011,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the social issues advocacy sca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1(1), 258-275.
- Saavedra, J. A. et al., 2022, Critical service-learning supports social justice and civic engagement orientations in college student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28(1), 1-27.
- Segal, E. A., 2011, Social empathy: A model built on empathy,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social responsibility that promotes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37(3), 266-277.
- Segal, E. A. and M. A. Wagaman, 2017, Social empathy as a framework for teaching social justice.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53(2), 201-211.
- Smith, H. et al., 2010, Five years after graduation: Undergraduate cross-group friendships and multicultural curriculum predict current attitudes and activi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1(4), 385-402.
- Todd, A. R., and A. D. Galinsky, 2012, The reciprocal link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perspective-taking: How ideological and self-regulatory approaches to managing diversity reinforce each oth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6), 1394-1398.

Empathy and Social Issues Advocacy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Se Rim Kim* · Min Ji Lee** · Ayun Qurrotu*** · Jung Hee Kang**** · Hang Jo*****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empathy,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and social issues advocacy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500 students enrolled in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and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mediation analyses with PROCESS Model 4 for SPSS (Hayes 2013). Results showed that empath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and social issues advocacy, and that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wa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issues advocacy.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social issues advocac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mpathy promotes social issues advocacy when accompanied by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underscoring its role as a key psycho-social found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social participation.

Keywords Empathy, Cultural Diversity Competence, Social Issues Advocacy, University Stud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Research year of Inje University in 2024(20240009)

* First-Author,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M.A., kimserim318@naver.com

** Co-Author,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M.A., twoh1117@naver.com

*** Co-Author,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M.A., jennith99@naver.com

**** Co-Author,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H.D.student, vovohee@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ssociate Professor, hangjo@inje.ac.kr